

지역별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쉽게 확인 가능
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
2018.2.1.

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
<http://map.ngii.go.kr>

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, 도서관,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을 ‘국토정보플랫폼(<http://map.ngii.go.kr>)의 지도보기/생활기반시설접근성’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지표란 우리 국토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·복지시설·보건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소요되는 이동거리를 측정한 지표를 말하며,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이 어디에 부족하고, 밀집해 있는지 등을 ‘500m 이내’, ‘500m~1km’, ‘1~2.5km’ 등 등 격자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.

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과 「국토정보의 생성 기준」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.

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다면 저성장·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현재,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”고 말하였다. 더불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보육시설(어린이집) 접근성* 지표 활용 예(천안-아산시 일원)

자료: 국토교통부(2018), “우리 동네 어린이집 얼마나 가까운지 한눈에 확인 가능해요”, 2월 1일자 보도자료,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(<http://map.ngii.go.kr>)

*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까지의 이동거리